DOI | https://DOI.org/10.21481/jbunka..82.201908.321.

1933년 경성일보 지면의 '조선문단'을 둘러싼 논쟁 연구

엄 기 권*
(e-mail : d-cometrue@hanmail.net)

<目　次>

1. 들어가며
2. '조선문단'을 둘러싼 두 작가의 논쟁
3. 1930년대 조선문단의 상황
4. 문예운동의 지도와 그 기관 설치를 요구하는 경성일보 사설
5. 나오며

キーワード : 京城日報(Keijo Nippo), 朝鮮文壇(Chosun Literary World), 鄭順貞(Jung Soon-Jung), 劉道順(Yoo Do-Soon), 張赫宙(Jang Hyeok-Ju)

1. 들어가며

1933년 2월 26일자 경성일보의 문예란에 '평양 정순정(鄭順貞)[1]'의 '조선문단을 말한다(朝鮮文壇を語る)'라는 글이 실리게 된다. 3월 2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연재된 이 글은 현재 조선문단을 '광야와 같은 미개지'로 비유하며, 현 문단의 소위 부르주아 작가들과 프롤레타리아 작가들의 작품활동의 '빈곤함'을 비판하고 있다. 그 이유로 정순정은 '작가의 생활보장'과 '정파문제'를 들고 있다. 즉,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생활보장이 되어야 작가의 작품활동도 활발해질 수 있는데 현 문단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이론을 주창하는 문단

* 한남대학교, 강사, 일본근현대문학

1) 정순정의 생몰년도는 미상으로 이력을 알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다. 그나마 조선중앙일보(중외일보 후속지)에 투고한 글들을 조금 볼 수 있는데, 위의 유도순과의 논쟁이 벌어지던 시기의 기사로는 「조선문학의 발생과 그 생산 과정에 대한 검토」(1934.4.7.~11, 총4회)와 「프로 연맹에 일언」(1934.3.6.~9, 총4회)을 들 수 있다. 특히 「프로 연맹에 일언」을 통해 정순정이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카프)의 창립 멤버로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www.kci.go.kr

의 정파문제가 작가의 작품활동을 매도하고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순정의 글에 대해 시인이자 동요작가인 유도순(劉道順)[2]은 경성일보에 같은 해 3월 8일부터 3월 17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잘못된 문단론-정 군의 망론을 타이르다 (誤った文壇論-鄭君の妄論を戒しむ)'라는 글을 게재하여 앞의 글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다. 정순정 또한 곧이어 유도순의 비판에 대해 재차 경성일보에 3월 25일부터 4월 12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다시 '조선문단'을 말한다 조선문학은 지금부터다(再び「朝鮮文壇」を語る 朝鮮文学はこれからだ)'라는 반박문을 게재한다. 이와 같은 논쟁은 유도순이 4월 16일부터 4월 20일까지 총 4회의 '재문단론을 비웃다-불필요한 치기의 대담함이여(再文壇論を笑ふ一不必要な稚気の大胆さよ)'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되는데, 4월 20일 유도순의 글 말미에는 '본 논쟁은 본고를 끝으로 일단 마무리하고 그 시비는 식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긴다'라는 경성일보사 문예담당자의 글을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무려 두 달여에 걸쳐 경성일보의 문예란을 떠들썩하게 했던 정순정과 유도순의 조선문단론을 비교 검토하여 두 사람의 조선문단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조선문단에 관한 논쟁에 지면을 제공하고 할애한 경성일보의 문예란과의 관계와 그 목적에 대해서도 고찰하도록 한다. 실제로 유도순의 반박문에 대해 재차 경성일보 지면에 정순정의 글이 실리고 있던 4월 5일 경성일보 사설란에 '문예운동을 지도하라-그 기관 설치의 제창(文芸運動を指導せよ-その機関設置の提唱)'이라는 글이 게재되어 두 사람의 논쟁을 부추기기도 한다. 사설란에는 드물게 문예관련 내용의 글을 실은 경성일보사의 목적과 조선문단의 현 상황에 관한 인식은 어떠했는지도 함께 시야에 넣어 분석하도록 한다.

2. '조선문단'을 둘러싼 두 작가의 논쟁

1933년 2월 26일자 경성일보의 지면에는 평양 정순정의 '조선문단을 말한다'라는 평론의 첫 회가 게재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다.

2) 유도순(1904~1938)은 평안북도 신의주 출생의 시인이자 동요작가. 일본 니혼대학 영문과를 졸업하고 4년간의 신문기자 생활을 보냈다. 1925년 1월 『조선문단』에 시「갈잎 밑에 숨은 노래」로 등단한 이후, 시, 가사, 동요, 시집 등 다방면에서 활약했다.

www.kci.go.kr

> 조선문단의 부르주아 작가든 프롤레타리아 작가든 똑같이 경제상으로 보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매우 참혹하고 빈곤한 생활을 보내고 있을 뿐이다. 아직 원고료제도가 확립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아무리 성실히 원고를 쓰더라도 원고료를 받을 수 있을 리가 없다.

정순정은 현재 조선문단의 상황을 부르주아 작가와 프롤레타리아 작가 모두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 그 이유로 원고료 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정순정은 조선문단을 황야와 같은 미개지로 비유하며 전대의 문학유산을 계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 문단의 작가들이 문단을 개척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부르주아 문학은 아직 일본문학을 모방하는 데에 그치고 있고, 프롤레타리아 문학은 공장이나 농장 보고서, 아니면 선전 삐라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선문학의 길잡이'로 정순정은 전년인 1932년에 일본에서 발행되는 잡지『개조(改造)』에「아귀도(餓鬼道)」가 당선되어 내지 문단에 등장한 장혁주를 거론하고 있다. 그의 문학이야말로 '확실한 축척'이자 '조선문단의 자랑'이며 현재 '조선문학의 길잡이'라고 주장한다.[3)]

정순정은 이와 같이 조선문학의 발전이 더딘 두 원인을 '작품의 빈곤문제'와 '정파문제'에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후자에 관해서는 이광수를 예로 들면서 최근 민족주의적 작가인 이광수를 파쇼작가라며 비난하고 있는데, 그의 작품에는 그러한 요소는 볼 수 없고 오히려 '정파문제'의 피해자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순정은 앞의 문제들에 대해 각각 '출판업자와 신문잡지 담당자의 자각'과 '작자자신의 반성'을 해결책으로 제안하며 글을 끝맺는다.

정순정의 4회에 걸쳐 연재된 조선문단론에 대해서 유도순은 일주일 후 경성일보에 「잘못된 문단론-정 군의 망론을 타이르다」라는 제목으로 반박문을 게재한다. 그 글에서 유도순은 정순정의 조선문단론에 대해서 '무의미한 공백문(空白文)'이라고 비판하며, 조선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조선문단에 대해서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며 글을 쓰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먼저 유도순은 조선문단에는 정순정이 지적하듯이 원고료 제도와 그 관련 기관이 없는 것은 아니며, 지난 해 조선과 내지의 문인들이 참여하여 원고료를 제정하는 등 작가

3) 고영란은 장혁주의 현상응모 '사건'의 의미로 다음의 두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로 '식민지 조선에도 '개조'와 같은 제국의 출판자본에 의한 미디어이벤트가 제국의 중앙과 거의 시간차 없이 가능하기 시작했다는 점', 그리고 "응모'라는 행위 자체가 '문학에 대한 투기'시스템이 가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지표가 된다는 점'에서 장혁주의 현상응모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고영란(2009)「제국 일본의 출판시장 재편과 미디어 이벤트」『사이間SAI』제6호,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p.125.)

www.kci.go.kr

들의 생활보장을 위한 '문예가협회'라는 단체가 설립되었다고 반박한다. 또한 정순정을 '실천적 문학론자', '예술지상주의 배격론자'로 비난하면서, 현재 조선문단의 빈곤함은 단지 문단자체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발달의 한 단계에 속하는 지극히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현 사회에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조선문단이 전대의 문학유산을 계승하지 못했다는 정순정의 지적과 조선문단의 출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 조선문단은 오늘날의 신문학을 적극적으로 조성해야하지만 유산은 선대로부터 계승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정 군이 말하는 것처럼 조선은 과거에 있어서 되돌아볼 문학이 없는 것은 아니다. 소설로는 「춘향전」, 「심청전」, 시가로는 「시조」, 그 외에 민요 등 불후의 명작이 있고, 이런 고전문학은 조선문학의 원천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현 문단에 영향을 주고 있다. 에도문학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내지문단의 메이지, 다이쇼문학인 것처럼, 1919년 삼일운동의 영향을 받아 발흥한 것이 조선문단의 신문학운동이다.(중략)내지문단에 비교해서도 부끄럽지 않은 작품이 많이 있다.(중략)정 군은 왜 이렇게 조선문단의 신문학을 부정하고, 작가를 무시하는 말을 굳이 하는지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4]

현 조선문단은 '신문학'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데 이러한 '신문학'은 선대로부터 계승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는 점은 정순정의 주장과 같다. 하지만 선대의 문학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춘향전」, 「심청전」, 「시조」등과 같이 현재까지도 영향을 주는 문학이 존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신문학'에 대해서는 1919년에 일어난 삼일운동의 영향을 받아 시작된 것이 조선문단의 신문학운동이라고 정의하며, 내지문단과 비교해도 부끄럽지 않는 작품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정순정의 의도성을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연속해서 게재된 그 다음 회의 글에서는 정순정이 조선문단의 침체 원인으로 '작품의 빈곤문제'와 '정파문제'를 지적한 데에 반해, 유도순은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변동에 의한 작가 자신의 정신문제로 인한 문학적 교양부족과, 검열문제를 들며 반박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순정의 글을 '자기 몽롱주관에 사로잡힌 노예적 비평문'이라 비난하고, '사실을 잘못 보고 있는 점', '이론에 체계가 없는 점', '비평태도가 비열한 점', '관찰이 협의천박한 점'의 네 가지를 들어 정순정의 반성을 촉구하며 끝을 맺는다.

4) 「京城日報」1933년 3월 12일, 밑줄은 논자.

www.kci.go.kr

3. 1930년대 조선문단의 상황

앞에서 본 정순정과 유도순의 조선문단을 둘러싼 논쟁을 게재한 경성일보의 문예란과 당시 조선문단의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자. 경성일보는 1906년 조선총독부에 의해서 창간된 일본어 신문으로 총독부의 정책을 대변하는 기관지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문예물을 살펴보면 집필진은 대부분 일본인들로 작품 또한 일반적인 대중물들이 실려 있어 동시대 내지의 지방신문과 큰 차이점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5] 문예란 또한 주로 일본 내지의 문단에 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1930년대에 들어와서 간헐적으로나마 조선문단에 관한 기사들이 실리게 된다. 조선문단을 둘러싼 정순정과 유도순의 논쟁이 경성일보 지면에서 벌어지기 2년 전인 1931년 12월 25일자 지면에는 윤고종(尹皷鐘)[6]의 「조선문단정시의 필요(朝鮮文壇正視の必要)」라는 글을 볼 수 있다. 윤고종은 지난 해 한 지인으로부터 조선문단에 대해 많은 비난을 들었는데 그 중에서 「타인을 의식하지 않는다」라고 비난받은 것을 거론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 나에게는 그런 비난을 부당하고 조선문학작품을 하나도 읽지 않은 사람의 그것이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는다. (중략)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 조선문단은 일본내지의 문인들이 다루는 문제를 「재탕」하기만 하는 문단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너무나 큰 두려워할 만한 독단적인 민족적 편견이던가, 그렇지 않다면 영토적, 부르주아적, 어리석은 배타적인 독단론자의 말일 것이다. 실은 그렇지 않다. 국가적이고, 한 나라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 같은 문학의 시대는 지나갔다.(중략)일본의 문제는 세계성을 갖고 있다. 일본문단에서 문제가 되는 것을 조선문단에서 문제로 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중략)조선문단, 특히 프롤레타리아문학은 현재 대중과 밀착하여 작가와 대중은 서로 손을 잡고 나아가고 있다. 그것을 모르고, 독단적으로 「자위적-독자가 없는-타인을 의식하지 않는다」고 포효하는 사람의 무지와 뻔뻔스러움에 기가 찰뿐

5) 厳基権(2015)「「京城日報」における日本語文学 - 文芸欄 · 連載小説の変遷に関する実証的研究 - 」九州大学博士論文

6) 윤고종(1912~?)은 함경남도 함흥 출생의 문학평론가. 1934년 「동아일보」에 평론「조선문단을 논함」이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등단. 1937년부터는 신문기자로 활동. 1953년 조선일보사 문화부장에 취임. 1960년 동아일보사에서 근무.

www.kci.go.kr

이다. 검열의 혹독함으로 인해 조선어 출판물은 불완전한 발전을 해왔다.(중략)조선의 풍속, 조선의 장래를 알고 싶다면 먼저 조선문단을 알아야 한다. 조선문단을 모르고 「조선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자만에 지나지 않는다.

지인으로부터 조선문단은 일본내지문단의 '재탕'이라는 비난에 윤고종은 '독단적인 민족적 편견'이나 또는 '영토적, 부르주아적, 어리석은 배타적인 독단론자의 말'이라며 맞받아친다. 또한 현 시대에는 문학이 한 국가 안에서만 존재하지 않고, 세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문단에서 다루어지는 문제 또는 주제가 조선문단에서도 다루어지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조선문단에서 조선어로 된 출판물들의 발전이 더딘 것은 엄격한 검열 때문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그러면서 조선에 대해서 잘 알고 싶다면 조선문단을 먼저 이해하기를 권하고 있다. 이러한 윤고종의 주장은 앞에서 본 정순정에 대한 유도순의 반박문을 떠올리게 한다. 특히 조선문단의 발전이 지지부진한 원인으로 검열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점은 유도순의 의견과 일치한다.

그럼 경성일보 외에 다른 미디어에서는 조선문단의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었을까? 정순정과 유도순의 치열한 논쟁이 끝나고 몇 달이 지난 1933년 10월호 『조선공론(朝鮮公論)』에는 만덕학인(万德学人)이란 필명으로 작가 김동인(金東仁)이 「조선문예의 현황(朝鮮文芸の現況)」이라는 글을 게재한다. 그 글에서 김동인은 문예란 것은 대중을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데, 이러한 문예는 '문예인과 출판업자의 합작' 이라고 규정하며 조선의 문예가 현재 쇠퇴하고 있는 이유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조선의 문예는 발아 당시부터 이미 파행적인 발달이었다.(중략)조선의 신문예의 구체적인 성장을 대변하는 문예잡지「창조」(동인창간)가 처음 독자 앞에 나타난 것이 1918년이고, 조선의 출판계를 대표하는 「동아일보」나 「개벽」이 나타난 것이 1921년 전후이다. 저널리즘이 발달한 현대에 있어서 문예물은 우두머리인 「출판」에게 몸을 맡겨야만 처음으로 정당한 성장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기형적으로 태어나 파행적으로 성장한 「조선문예」는 언젠가 반드시 큰 파탄을 맞이할 운명을 태생적으로 지니고 있었다. 출판의 상대자는 대중이다.(중략) 요즘 조선에서 다달이 발행되는 적지 않은 출판물을 보면 이름 있는 문인들의 이름이(신문연재소설 외에는)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서로를 보이콧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판자는 원고료 지불의 의무를 피하기 위

www.kci.go.kr

해 그들을 보이콧한다. 문인들은 원고료를 내지 않으면 당연히 쓰지 않는다.

김동인은 조선의 문예에 대해 그 시작 단계 때부터 기형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었고, 파행적으로 발달해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조선문예의 성장을 보여주는 잡지와 신문으로 1918년에 창간된 「창조」와, 1920년에 창간된「동아일보」, 「개벽」을 거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잡지 신문 미디어가 나타난 시기는 앞에서 유도순이 이야기한 1919년의 삼일운동 이후에 나타난 신문학운동의 시기와 비슷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선의 문예는 저널리즘의 우두머리격인 '출판'과 '대중'을 무시했기 때문에 파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현재 조선에서 유명한 문인들의 출판물은 '문인들의 서자'인 신문연재소설 외에는 거의 보이지 않고, 독자들 또한 에로 · 그로한 흥미위주의 읽을거리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동인은 현재 조선의 문예를 운운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앞으로 조선의 대중이 문예를 이해하고 대중의 어릿광대인 '출판계'에 문예를 요구하지 않으면 조선의 문예는 당분간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 진단하며 끝을 맺는다.

이와 같은 김동인의 조선문예에 대한 진단은 당시 출판된 『조선연감』[7]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의 신문학운동이 1934년에 약 20년이 되었지만, 사회의 여러 가지 정세로 인해 내지문단과 마찬가지로 신흥문단도 부진상태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1933년 9월 이후부터 조선문단에는 신구문인들의 부활의 목소리가 일어나 신간잡지를 발행하거나, 문인단체의 조직, 극(劇)운동 등이 활발히 나타나서 문단 부진을 타개하려는 움직임을 볼 수 있다고도 평가하고 있다.

4. 문예운동의 지도와 그 기관 설치를 요구하는 경성일보 사설

이상과 같은 문단 상황 속에서 경성일보 지면을 통해 정순정과 유도순이 조선문단을 둘러싼 논쟁을 펼친 것이다. 잠시 앞의 두 작가가 이광수에 대해 언

7) 경성일보사·매일신보사편(1934)「조선인의 문예」『조선연감』경성일보사·매일신보사, p.572.

www.kci.go.kr

급한 내용으로 돌아가자. 정순정이 민족주의 작가인 이광수가 파쇼 작가라고 비판 받고 있는 것은 정파문제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유도순은 이광수를 파쇼작가라고 비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한다. 하지만 두 사람의 논쟁이 일어나기 얼마 전인 1932년 11월호 『제일선』에는 백세철(白世鐵)[8]의 「문예지평-개조문예란과 조선작가」라는 글이 실려 있다.[9] 그 글은 앞에서 언급한 일본의 문예지 『개조』문예란에 이광수 외 2, 3 명의 작가가 글[10]을 투고한 것에 대해, 조선 부르주아 문학의 발전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일본 문단의 특수한 사정에 의한 현상이라고 분석하며 조선작가들의 내지 문단진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 조선작가의 일본문단진출 현상의 이해에 있어서 우리들은 첫째로 그것은 오늘날의 일본 부르주아 문학의 급격한 파쇼화적 현상과 관련하여 생각한다. 부르주아 문학은 다만 국내적으로 그들의 문학을 파쇼화적 방향에 조식시킬 뿐 아니라 국외적으로도 특히 ××지민족주의문학을 연결시키며 포함시킬 필요에 당면하고 있다. 그와 같이 국외적으로 그들의 문학을 유기적으로 결탁시키는데서 뿐 그들은 수긍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로 특히 개조문예란과 조선작가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있어 그 뒤에 움직이는 일본출판기업가의 힘 즉 개조사장이 그들의 ……인 만주시찰의 도정에서 조선의 노골적 반동 문화기관의 하나인 ××일보사에 체류하였으며, 거기서 이광수 씨 등과 관계를 맺었다는 특수적 사실에 대하여 일정한 주목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들은 오늘날의 부르주아 저널리즘의 경향이라는 것을 빼어놓을 수 없다. 오늘날의 자본주의문화의 일반적 위기와 같이 이 부르주아 저널리즘도 위태한 「막다른 길」에 직면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무의식한 대중을 에로, 그로 소설을 위시한 난센스한 독서물도 이젠 그만 최후의 마력을 잃고 말았다. 이때에 있어 일본 부르주아 문단이 그 타개책의 하나로 조선에 특수한 사정에 의한 이그조틱한 독서물을 생각하게 된 것은 별로 이상한 현상은 아닐 것이다.」

8) 백세철은 평론가 백철(1908~1985)의 필명. 백철은 평안북도 의주 출생으로 1927년 일본의 도쿄 고등사법학교 영문과를 입학, 귀국 후에는 개벽사의 기자로 활동하였다. 1932년 조선문필가협회 발기인으로 참가. 1934년 8월 제2차 카프검거사건에 연루되어 1년 반 동안 전주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1935년 12월 석방. 1939년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기자로 입사하여 학예부장을 역임.

9) 백세철(1932)「문예지평-개조문예란과 조선작가」『제일선』제1권7호, 개벽사, pp.103-105.

10) 장혁주의 「아귀도」(4월호)를 필두로 이광수「조선의 문학」(6월호), 윤백남「소설 휘파람」(10월호), 장혁주「쫓기는 사람들」(10월호)이 연속적으로 게재된다.

www.kci.go.kr

백세철은 조선작가들의 내지문단으로의 진출과 관련하여 첫째로 '일본 부르주아 문학의 급격한 파쇼화적 현상'이며, 둘째로는 '일본출판기업가의 힘 즉 개조사장'과 '조선의 노골적 반동 문화기관의 하나인 ××일보사'와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 부르주아 문단이 그 타개책의 하나로''이그조틱한 독서물'에 주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중에서도 두 번째 내용의 '××일보사'는 경성일보를 가르키며 실제로 개조사의 사장인 야마모토 사네히코(山本実彦)는 1932년 5월 9일 경성을 방문한다. 다음 날인 10일자 경성일보에는 나카오 다쓰오(中尾竜夫) 경성일보사 부사장과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만주와 조선을 방문한 이유에 대해 조선의 예술가들과 만나서 조선예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싶다고 방문 목적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내지 출판 저널리즘의 대표격인 야마모토 사네히코 개조사 사장과 식민지 조선의 경성일보사와의 관계를 백세철은 강하게 비판하였고, 그런 배경 속에서 조선문단에 관해 정순정과 유도순이 논쟁을 벌였던 것이다. 다시 두 사람의 논쟁으로 돌아가 보자.

정순정은 유도순의 첫 번째 반박문에 대해 다시 경성일보에 「다시 '조선문단'을 말한다-조선문단은 지금부터다」라는 글을 총 13회에 걸쳐 게재하여 재차 논쟁에 불을 붙인다. 지금은 규슈지역 어딘가에서 기자를 하고 있을 일본인 친구로부터 조선에는 문학의 유무에 대해 질문을 받았던 에피소드로 글을 시작한다. 일본인 친구의 질문에 정순정은 이광수와 그의 작품을 소개하며 반박했지만 그런 행동은 비양심적인 행동이었다며 반성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조선에는 아직 문학이라는 것이 없다, 굳이 말하면 극히 유치한 것뿐이다'라며 솔직히 말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11] 즉 조선에는 제대로 된 '문학'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문예가협회에 관해서는 문필가협회라며 지적을 하고 과연 문필가협회가 작가의 생활보장을 위해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 묻는다. 어떠한 권위도 없는 협회를 신뢰하는 것은 과신이고 인식부족이며, 조선작가들의 쓸쓸한 사교단체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한다. 단체의 구성원들을 보아도 신문출판 당국자나 출판업자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원고료제도를 저지하기 위한 하나의 기만단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12]

11) 「京城日報」 1933년 3월 25일
12) 「京城日報」 1933년 3월 29일

www.kci.go.kr

마지막으로 정순정은 조선 문학의 여러 주의(主義)에 대해서 일본문단으로부터 유입된 것이라는 유도순의 의견에는 동의를 하면서도, 그 주의를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문학적, 사회적인 근거의 부재를 지적한다. 즉, 아무런 문학적, 사회적 근거의 준비 없이 일본문단으로부터 무분별하게 유입하여 조선 문단을 더욱 침체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조선문단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확실한 사상적인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쓸데없는 정파문제에서 과감히 벗어나 하나의 '주의(主義)'에 집중하는 것만이 조선의 문학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다.[13]

그런데 이와 같은 정순정의 주장이 경성일보 지면에 실리기 불과 4일 전 경성일보 사설란에는 드물게 문학관련 내용의 기사를 볼 수 있다. 사설의 제목은 「문예운동을 지도하라-그 기관 설치의 제창」으로 현 조선의 문예운동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 조선 지방의 문예운동의 취향은 근래에 들어서 점차 그 표현의 형태가 일본적 칼라로 칠해지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은 경제적 관계에 의한 내선인의 실생활이 차차 동화융합해 가는 것과, 또 하나 국어의 보급에 의한 자연스러운 결과로 종래의 조선어에 의한 문예의 범주로부터 탈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연극, 미술 등도 같은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견문이 적어서 아직 우리 지방의 문예 중 위대한 작품을 접하지는 못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과 조선인의 독자적인 특색을 갖거나 의식을 지닌 문예운동이 무통제적이지만 점차 발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14]

이어서 사설은 문예운동으로 인심(人心)을 지도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조선지방과 같은 특수한 지역은 특히나 문예방면의 운동이나 흐름에 유의해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관이 함께 운동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좋은 예로 조선미술전람회와 같은 '미술장려기관'을 들어 이와 같은 예술운동으로 인한 내선인심의 융화향상을 도모하는 정책이 큰 효과를 가져왔다고 제시한다.[15] 그렇기 때문에 문예 쪽도 이와 같은 '통제가 필요한 운동'이 일어

13) 「京城日報」 1933년 4월 9일
14) 「문예운동을 지도하라-그 기관설치의 제창」(「京城日報」 1933년 4월 5일)
15) 조선미술전람회는 1922년부터 1944년까지 총 23회에 걸쳐 조선총독부 학무국에서 주관한 관립 공모전이었다. 이중희는 조선미술전람회의 설립배경에 대해 첫 번째로는 '당장에 강압지배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정치적 트릭'이었고, 두 번째로는 '국내 일본미술가들의 작품활동을 신장

www.kci.go.kr

나도 좋은 시기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바라는 문예운동은 문예의 본질도 중요하지만, 그 이데올로기로서 사회인심을 밝고 쾌활하게 지도할 수 있는 이상을 갖는 '옆으로의 운동(横の運動)'이라고 말하고 있다. 계급의식에 입각한 '위아래로의 운동(縦の運動)'도 간과할 수는 없지만 지금과 같은 비상시의 일본에 있어서는 국가의식을 강조한 문예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그러한 운동을 지도할 기관 혹은 일정한 지도정신을 지닌 강력한 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사설을 끝맺고 있다.

이와 같은 사설의 논조가 하나로 통제할 수 있는 '주의', '흐름', '사상', '기관'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는 정순정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앞에서 본 정순정의 재반박문과 위의 사설을 읽었을 유도순이 「재문단론을 비웃다-불필요한 치기의 대담함이여」에서 조선문단의 존립을 인정하고 '조선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자신의 의견에 반해, 정순정의 의견을 「너무나도 타존적(他尊的) 허영적 이상론」으로 「조선적존재」를 잊어버리고 있다고 비난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5. 나오며

1930년대 조선문단은 1932년에 일본 내지문단에서 데뷔한 장혁주의 작품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일본 내지문단은 문예부흥기와 맞물려 조선이라는 「지방」의 「조선문학」에 주목하게 되고, 조선에서는 그러한 내지문단의 시선에 반발/호응하는 등 여러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 때까지 주로 일본인이 쓴 작품과 기사들을 주로 게재해 왔던 경성일보는 이러한 내지문단의 시선에 호응하여 두 조선인 작가로 하여금 「조선문단」이 가야할 길을 제시하게 하고 있다. 지금까지 조선에서 재조일본인과 조선인의 문학단체에 관한 연구는 주로 1939년에 이광수를 회장으로 하여 설립되는 조선문인협회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어져 왔다. 하지만 1933년 경성일보 지면의 정순정

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으며, 마지막으로는 '일본 미술에의 동화의도'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이중희(2005)「조선미전 설립과 그 결과」『한국근현대미술사학』15,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p.39, p.41)

www.kci.go.kr

과 유도순의 조선문단에 관한 논쟁을 통해 '문예에 의한 내선인의 제휴, 문예에 의한 사상전도'는 이미 1930년 초부터 그 움직임을 엿볼 수 있다.[16]

【参考文献】

嚴基権(2015)「「京城日報」における日本語文学 - 文芸欄 · 連載小説の変遷に関する実証的研究 - 」九州大学博士論文

경성일보사·매일신보사편(1934)「조선인의 문예」『조선연감』경성일보사·매일신보사,p.572.

고영란(2009)「제국 일본의 출판시장 재편과 미디어 이벤트」『사이間SAI』제6호,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p.125.(DOI : 10.30760/inakos.2009..6.004)

백세철(1932)「문예지평-개조문예란과 조선작가」『제일선』제1권7호, 개벽사, pp.103-105.

이중희(2005)「조선미전 설립과 그 결과」『한국근현대미술사학』15,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p.39, p.41.

신문기사

鄭順貞「朝鮮文壇を語る」（「京城日報」1933年2月26日～1933年3月2日/4回）

劉道順「誤つた文壇論＝鄭君の妄論を戒しむ」（「京城日報」1933年3月8日～1933年3月17日/8回）

鄭順貞「再び「朝鮮文壇」を語る-朝鮮文学はこれからだ」（「京城日報」1933年3月25日～1933年4月12日/13回）

社説「文芸運動を指導せよ　その機関設置の提唱」（「京城日報」1933年4月5日）

劉道順「再文壇論を笑ふ一不必要な穉気の大胆さよ一」（「京城日報」1933年4月16日～1933年4月20日/4回）

劉道順「朝鮮文人オンパレード一小説界詩壇評論界一」（「京城日報」1933年5月6日～1933年5月13日/5回）

논문 투고 일자 : 2019. 06. 30.
논문 심사 일자 : 2019. 08. 02.
게재 확정 일자 : 2019. 08. 05.

16) 정순정과 유도순의 논쟁이 끝난 다음 달인 5월에는 조선문인을 소개하는 정순정의 글이 경성일보에 게재된다. 정순정은 이 글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조선의 내지인 작가는 조선 작가의 면면, 그 작품과 그 사상적 위치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한다. 그것은 결코 지리상으로 같은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니다. 그 보다도 문예에 의한 내선인의 제휴, 문예에 의한 사상전도(지난 5일자 본지 사설은 「문예운동을 지도하라」로 이렇게 제창했다)등의 문제가 오늘날 내선문인에게 평등하게 부여된 당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내지작가는 조선문단에 관해 먼저 세세한 곳까지 그 지식을 구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 때문에 이 졸론을 쓰는 바이다.」(정순정「조선문인 온 퍼레이드(상)-소설계 시단 평론계」(「경성일보」1933년 5월 6일))

www.kci.go.kr

<要旨>

1933年京城日報における「朝鮮文壇」をめぐる論争研究

厳基権

本稿では、1933年に二ヶ月に渡って京城日報の文芸欄を騒がした鄭順貞と劉道順の朝鮮文壇論を比較および検討し、二人の朝鮮文壇に対する認識の違いが何に由来するのかを考察する。また、朝鮮文壇に関する論争に紙面を提供した京城日報の文芸欄との関係とその目的についても考えてみる。

1930年代朝鮮文壇は1932年に日本内地の文壇でデビューした張赫宙の作品をきっかけに新たな局面を迎えることになる。日本内地の文壇は文芸復興期と相まって朝鮮という「地方」の「朝鮮文学」に注目し、朝鮮ではそういった内地文壇からの視線に反発・呼応するなど多様な反応を見せている。当時、主に日本人が書いた作品や文芸関連記事を掲載してきた京城日報では、こうした内地文壇からの視線とも呼応し、二人の朝鮮人作家が「朝鮮文壇」の行くべき道を示したのだ。

A Study on the Controversy over the Chosun literary world in Keijo Nippo in 1933

Eom, Ki-Kweon

This paper is intended to compare and examine discourses on the literary world in Chosun, which were made by Jung Soon-Jung and Yoo Do-Soon in Keijo Nippo's literary columns for two months in 1933. I also argue about what made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theories on the literary world, and consider their purposes and relationships with Keijo Nippo, which provided spaces for the discussion on the literary world in this newspaper.

In the 1930s Chosun, the literary world entered a new phase with the works by Jang Hyeok-ju, who made his debut as a writer in Japan in 1932. In the period of literary revival in Japan, the literary world in Japan paid attention to "Local" "Chosun Literature." In Chosun, there were various reactions such as opposing or responding to the gaze of the literary world in Japan. In such a situation, the two writers in Chosun responded to the gaze and showed the goals, which the literary world in Chosun should achieve, in Keijo Nippo, which had mainly carried literary works or articles by Japanese writers.

www.kci.go.kr